

■ 자기소개

● 3~5분 정도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32년 평양에서 태어남
45년 안동 함흥에서 태어남
평양으로 귀향 정치운동 수학
49년 귀향해서 귀남광주 귀남대중문화
56년 이대야생운동학과 정치학
한국SWCA 연립회 회장으로서 활동
바르셀로나 Manila의 귀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사회과학부)

귀족대학생가설 → 총무치임
50년은 야생운동,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사회운동
1981년 초 ~ 1983년 정치활동
93년 ~ 1992년 한국 개발협력대학 GID에서
국제환경정책연구소 (발행)
국민의힘당에서 대총괄지부 지부장으로서 활동
활동한 분야 한국환경정책연구소 이사장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한 것
한국야생대안 이사장

● 김대중 선생과 이희호 여사를 개인적으로 처음 알게 된 계기.

이희호 여사: 60년경 SWCA 활동으로 부임시 (나도 대학생이었는데)
정호 SWCA 회임 (김대중님 주축으로) (내가 부임함)

김대중님: 남한에서 활동한 김대중님에게,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우리끼리 모임에서 가끔씩)
3.1절 제헌절의 기록이 한번 법원에 들어갔을 때 DJ에서 <거대운여는 누구냐고>
물어보는 안목에서 이야기에서 많듯이 이희호 여사를 정호로 알고 있는 것 같다.

■ 1976년 이전의 활동 (초안이 독재정치의 등교를 처음으로 갖는 일이었다)

● 여성운동 참여, 이희호 여사님과의 관계

45년은 다양한 인물으로 관계

- ① 정경의상사 (SWCA)
- ② 야생운동, 사회운동의 선배 활동
- ③ 같은 선배인 (기록)
- ④ 양심병 기록인으로 (민주화운동 동지)
- ⑤ 나의 상사의 아내 (정계인물)

⑦ 대총괄 업무인 Model "나를 기쁘게 하는" (초미리 업무인 으레의 움직임)

● 이희호 여사님이 김대중 의원에 미친 영향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지위가 없었던 것을 나의 내기 잊을 수 없다> 고한 말에서 알듯이
이희호 여사의 영향력은 깊은 것이었다 <남편에게서 존경받는 아내>

- ① 정치활동 등의 발전 (정치적 활동,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 ② 가림 지점 (전체, 양심)
- ③ 정치운동, 수년지 보살핌
- ④ 수년지 정치권 격려 (기록, 양심)
- ⑤ 초미리 업무인

국회의
수상장관이
이름

SWCA 이사장, 국민총력을 정호발대 (이후 수년지, 61년 당시 2대 김대중, 정호발대)
야생운동, 사회운동에서의 무한한 가능성 포기 안다.
2대 김대중 정호발대
<한 사람의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임의로

-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이전에 김대중 선생에 대한 평가와 기대

이제야 이 정도를 유지하게 되어서:

소신있는 권력인, 강인한 권력인 (한여름이 지나면 모든 것을 포기할 권력인)

필요로 안봐도 좋겠어:

권력주체형식의 대안가 (60년대 초 대항쟁시기에 활동한 후에 장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주입적 회상

안병무, 3.1선거 구속당시 김대중 처음 대변

중립의 독립운동가, 항일 투쟁가로서의 그의 위치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유감없이 남다른 계층의 항일 투쟁가 놀라다)

- 기독교 민주화운동 참여.

권력주체형식에 대한 민주주의론, 인본주의론과 관계지론들이 앞장서다.

김대중, 박정희 등들의 주축이 관계의 민주주의론에 불합치다.

북아문서, 세계 교회와의 연대 ('76.11.25~29일 서울에서 인천, 평양권 대회 개최)

3.1 주권선언으로 구속당하는 뒤로 18년 동안 모두 신.구교 관련으로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참여 (기독교교회단 연합교회(북한 제외))

선교사들의 함양, 외국과 친리들의 함양

- 안병무 선생님의 해직

'75년 1차 해직, '76년 후속 '80년 복직 잠깐

권력주체형식 지지해직, 4년 후 복직

비밀로 생활하면서 노조로 (양계장)

- 목요기도회와 갈릴리교회 참여.

*"목요기도회는 저항운동의 꺼지지 않는 등불 역할을 했다." (안병무)

*1975년 8월 17일 기독교 해직교수들(문동환, 안병무, 이문영+이우정)을 중심으로 갈릴리교회 설립예배. 8월 31일부터 한빛교회에서 오후 2시 반에 갈릴리교회 예배.

수난의 길을 위한 교회,

주권위하는 교회

침묵을 위한 헌정예배

정보교환, 정보제공

감시인이 아니라

통제인이 아니라

안병무의 <신앙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의 완성

감동과 기쁨,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

- 3.1민주구국선언

- 안병무 선생님 구속시의 상황

안병무가 사형선고를 받고 2.28일 문익환목사님 집방문에서

기억하는 것은 내리 반대편 대립한 것

안병무 신학자의 교양(그것을 주입으로 생각 했으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년 뒤로 친중

같은 주권에서 나왔는데, 4.19만 되면 주권으로 인해 손을 내리고

관한다고 적어주게 하신 허락. 1976년.

5.16이후
권력주체형식
지지해직

해방구
권력주체형식

3월2일: 신교원학교에서 공부하던 자진출두 → 불부수로 보내졌던 중학생으로
김성재에게 memo 작이름

3월10일: 오후 6:00에야 인종과 정복 (종교)으로 가깝게 18명을 인종으로 P목회원으로
임명하라는 말씀 (2명의 무인종교 불신자들이 독일로 떠났다) (당시 3월15일)
나는 TV를 보며 정복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갈라짐
그날밤 인종 11월4일 가택수색당함 (22대로 자라난 아들인 조원) ~~한~~ 리하고갈라
감옥에가기 싫어하고 있던 리 안방이장로는 유언하네 재빨리 갈라

알고보니 리 (리구리나 뒷말 때문)
우리노에서 장제이주인처 하종흥보: 22대나 미리 재빨리기에서 장제이주인 처하종흥보
대리기기로 갈라짐

● 사람들과 외신기자들의 주목을 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위방식들과 그 발
의자들.

회수	날짜	내용	이회차
제 2회	5월 15일	방정권 태움	태워진 5대 방정권으로 이회, 주한공관으로, 한류는
제 3회	5월 29일	공정재판 부채를 들고	태워진 한류의 관 계기 2대
제 4회	6월 3일	양산(민주인사 석방하라)	한류이강강 알라기위하 (주한공관, 이회로 18명중)
제 5회	6월 12일	붉은 십자가를 달고	백색 2대나
제 6회	6월 19일	보라색 한복 가두시위	독립을 되찾기 위해, 평화공화국시위하
제 7회	6월 26일	재판정 연좌시위	
제 8회	7월 3일	보라색 양복	여론이리나 다위하
제 9회	7월 10일	'민주주의 만세' 수놓음	
제 10회	7월 19일	'민주회복' 붓글씨	백을강강으로 3.15.25로.
제 11회	7월 24일	빅토리 술 짜서 두르고 시위	민주회복기

공개재판문구 만주인사방종주, 권력주재의 독립을위하 (외신기러 자국들의 용감함으로)
이러한 시위에서 이회로 리고는 불신에 대한 추지, 위하, 행동 발취
구독리 부인하, 권력을 신신복합하게 공동행동 (공공지애스로)
가장많은 집이 인종, 중학생, 대학생, 재판소, 구리노 앞 등에서 시위
가장많은 정복, 경찰위에 끌려가기도 ('6.15.4월 부활절, 리구리노에서가
한류는 가장 리구리하 (명연성하는 용기 발취)

● V자형의 빅토리 술을 짜서 외국에까지 팔았는데 독일에는 어떻게 보냈
나?

가장중에 뜨게질 명수들이 가져다. 이회로, 백동강, 나르 한복
남서로 주가기에서 필드에 의해시작한 것으로 뜨게시작한것으로
주한공관이 리하, 모금하기위하 (무연고 24호로 돕기위하)
독립을배려한 리구리하의 힘이 나르 주 (후에 여러행동으로) 일반용

독일에는 주로 주한공관으로 흥해하 (인본으로)
리구리하의 힘으로 (판대로 리고 기구금으로 보냈고) 구리하의
외국 방문객

{ 구리하에서 변형시작을 기다리다
관상시이
관하시이
각이여로

계정할 앞두고 형식양식까지 기록한이 이리나 무연고재빨리위하

보통 캠퍼스 (안병무의 교수)
 헬렌스 (안병무의 주교) 같이 공부하는 사람

안병무 교수 (안병무의 교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협의회)
 독일교회 재건위원회
 국제기독교대학

● 독일교회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도왔는가? 그 중심인물들은 누구인가? 안병무 교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나?

*“특히 독일에서 정부와 교회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나의 석방을 요구하는 외교가 진행됐고, 독일 안에는 하이델베르크대학을 중심으로 석방 서명운동을 벌였다.” (안병무)

*“포스터의 사진은 아마도 안병무 집에서 희희낙락하고 있던 우리를 독일 선교사 슈나이스 목사가 찍은 것일 것이다... 충청로에 있는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에... 갈릴리교회의 6인 교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보조를 받았다...” (이문영, p.167)

3.15 사건으로 독일교회와 그리스도인 재건위원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인권운동에 민주화운동은 투쟁이 같은 마음 같이 하고. 중심인물은 크게 되고

해방교수이고, 주교이고, 인권을 지키고
 Heinz Eduard Taubert 교수 (보통 캠퍼스 교수로 같은 재건위원회)
 EMD (독일기독교교회협의회), EMD (독일기독교교회협의회) DPA (독일교회협의회)
 Kurt Scharf 주교 (리틀리강의 나빌리움 (성서강의를 강해) 하이델베르크대학을 대표
 독일교회교회로 나옴

● 독일교회와 한국 민주화운동을 매개한 다른 창구도 있었는가? 독일교민들 중 한국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는가?

노무현, 박종철, 등 유학생들

독일교회의 활동으로 유학생들이, 이념으로 유대 관계를 맺는다.

X

● 구속자 가족들의 항의공간으로서의 목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갈릴리교회, 명동성당의 인권미사 등의 역할

해방교수
 국제기독교대학

● 70년대 80년대에 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소장님 덕이 18세기 프랑스의 싘롱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최의장도, 이계재의장도, 석방관한영장도, 외국방문객장도,

명장모임, 4.19추모모임, 고은소송정호모임,

김대중소송모임 3.1사건모임 무기징역발판장 박동규씨한방관리 (최계재씨관리관심준비장인물무주노름리영사주변가거리)

평촌 주 3~4회 40, 80대장도

유대인방식 손님가게가 3대

제법명장이 머무는 — <머무는 곳>

■ “구속자가족협의회”로부터 “양심범가족협의회”로

● “구속자가족협의회”는 어떻게 출발하였나? 여기에 직접 참여하였나?

3.1사건모임은 남산의 구속자들을 공동행동을 취해야 하는

행태상 지은 발상적으로 (석방, 항의, 연구 등 공동행동 필요)

학생, 노름, 석방 등 다양한 group의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의 공동대행이 필요한데다 성격도
다양, (연대의 필요성)

● “3.1사건가족대책협의회”의 발족 배경에 대하여

● “3.1사건가족대책협의회”의 활동. 이희호 여사님의 참여와 역할

여러주목가족모임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권

물론 이희호 여사님이 계시기 때문

이희호 여사님과 김대중소송모임을 통해서

많은 권력, 주목, 학생, 노름, 주목을 통해서 하는 것

내년에는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

- “구속자가족협의회”를 “양심범가족협의회”로 개칭하게 된 배경

집안에서 안쓰는게 구속자들이 석방되기로 해서
개칭된것이 아닐까?

- 3.1사건 관련 구속자 석방을 위한 활동에서 야당은 어떤 역할을 했나?

이회영의원님 주선에서

- 당시 구속자 가족들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거기 입에서 나오는것이 좋지
다양한 시위등이 2대서 안드러진 3대까지
5.18 사건도 — 서울에서 안드러지지
안드러지는것이 좋지

구속자들이 해마다
하루로 힘쓰는데
시위등이 계속
구속자들이 병들어서
가장 많이

- 함께 면회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일

고향을 가면서 많이 다니고
조식등을 들고 다니면서
분류한 사람들의 힘

남들이 재판받으면서 구공에서 불만을 쓰는것이
부인들은 많이 안드러, 시위, 예매, 등에서 기쁨으로 상항하리
매리꾸러기 2대하 (시위를 망각 보다는)

- X ● 박형규 목사님이 각 교도소를 돌아다니며 전원이 석방되니 각서를 쓰도록 권유. 1977년 12월 31일 김대중 선생을 빼고 전원 석방. 각서에 관한 사실을 이희호 여사만 모르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양심범가족협의회”에서의 활동

기도회 개최, 관공에 대한 연구하기
이래로 가족들끼리, 자네들끼리
외국 방문, 기사 등 interview

- 3·1민주구국선언 사건이 소장님에게 미친 영향. 안병무 선생님은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내가 체포될 때는 한 마리 고양이였던 아내가 호랑이로 변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내내 40대 중반 3·1선언으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국비로 고난에 함께 극복해 주신 가족들의 인품에 영감을 느껴
젊은이들의 생애관내출고 (민중투쟁, 시위에 적극적)

- 인문학 한빛교회 관공에 대한 Project

- 1979년 10-26 전후한 시기의 활동

앞에 연극 받고 있다

- 1979년 11.24일 유대사위랑 조현숙 분의 때 이광수, 박영호 이 해위, 박영호, 해위, 안희정 하위, 홍대영, 반대희, 신준, 김경호 이라 하고 해위의 딸을 어떻게 불러 줄까요?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 5.17 전후의 상황 경험

행사를 앞두고 총집중례

안병무 임종경색 등으로 대병중 (석방전후 모듬일 간담회)

5.19일 밤잠으로 서울대병원으로 54백 병원에 여러 일의 등
거리는 심한 상황 병원으로 총례

X ● 6월 6일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미국 대사관을 방문한 일에 관하여. 김형
씨(한완상 교수 부인)가 함께 함.

● 구속자 가족들이 슈바이처씨를 비롯한 독일 선교사들과 안병무 박사 덕
분에 슈피겔지와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는데... 밤에 독일문화원에서

독일관련은 모두 신학연구는 슈바이처로 연구는

● 5.17 이후 이희호 여사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이희호 여사님과의 연대
활동은 불가능했나? 어떻게 도와드렸나?

대개의 경우 방문은 가능했지만 기억, 무렵에는 방문으로
김여사님의 주축기간에는

- 구속자 가족들과 계속하여 연대활동을 벌였나?

89년 11월 22일 김계임씨를 만나 여권하는 활동

자녀권 대항운동 — 서울에서, 임박한 김대중의 서울에서
재정착한 곳이다

-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이후와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 구속자 가족들의 구명운동에서 달라진 게 있나?

5189년 2월 7일 대항하다

- 1987년 이전의 활동; 이희호 여사님 및 김대중 선생과의 관계

1961년 3.1선언이후 한국독립당

모든가치있는 우리 (한국의, 김대중 계보로, 문익환 등 재야인사
김대중의 한국)

*. 박정희를 김대중을 위해 싸우는 우리의 뜻있는 운동을
못다하게 하였다.

- 1987년 정치입문과 대선

- 후보 단일화 노력과 여성단체의 역할? 김대중 후보에 대한 여성단체의
요구와 기대는 무엇이었나?